

《희천속도》는 선군조선의 대전군속도, 대비약속도이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대고조선군의 최대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기세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전군속도, 《희천속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공격정신이 안아온 선군전리마속도이다. 《희천속도》, 바로 여기에 백두의 선군령장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영웅적기상이 어려있고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올해의 강행군을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시찰로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속도》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대국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대전군속도, 대비약속도라고 명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흐르고있는 붉은 초는 그대로 비약이고 혁신이며 희천발전소건설속도가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의 본진이 있고 무한대의 위력이 있다.》

《희천속도》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수령적용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두고있는데 선군시대 새로운 천리마속도의 본진이 있고 무한대의 위력이 있다.

지금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선진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립체전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호르는 분파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뎌는 심정에 받아안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창조되게 된다. 우리 인민군대는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최정예의 백두산 혁명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필승의 기상과 공격정신을 그대로 닮은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품모이며 전군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새 차게 맥박치고있는 여기에 불가항력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위력이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반제군사천선에서 백송의 력사를 창조하였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수놓아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시라면 초강대국격으로 천만대적도 맞받아 물리치고 천만시련도 파갈지 뚫고나가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상이고 전투적기질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공격정신을 지니었기에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북방의 흑한과 폭우속에서도 방대한 건설공사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내밀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정은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헌신성을 날고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킨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언제까지나 공로리타입, 물질갈취공사를 비롯한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에는 최고사령관님을 휘날리며 노도쳐된 나아가려는 인민군장병들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가 아로새겨져있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혁명적무장력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전투에서나 건설에서나 드세한 공과와 강력한 돌파로 승리를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혁명부력의 돌격속도는 하나가 일, 백을 당하고 한걸음에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는 말대고 일당백속도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시라면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이다.

《희천속도》는 최고사령관님을 필승의 기상이 내내치게 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된 새로운 천리마속도야말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희천속도》는 최고사령관님을 필승의 기상이 내내치게 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된 새로운 천리마속도야말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희천속도》는 최고사령관님을 필승의 기상이 내내치게 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된 새로운 천리마속도야말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선군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일심단결의 대서사시적화폭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분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걸음걸음 따르는 혼연일체, 혁명의 수뇌부의 구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으로 대비약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것이 《희천속도》이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시련도 웃으며 뚫고나가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일심단결의 속도, 군인일치의 속도, 천만군민이도 무조건 없는 선군조선의 귀중한 재보이다. 10년을 2~3년으로 주름잡는 일심단결의 속도가 있기에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을 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거품처럼 쓸어버리며 희천의 기상으로 더 높여, 더 빨리 비약할것이다.

《희천속도》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대국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대전군속도, 대비약속도이다.

우리 당이 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칠 때마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며 승리의 봉우리로 힘차게 전진하여온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세기적기적을 쌓아온 천만군민의 영웅적기상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 대고조선건설에서 더욱 힘있게 피어날것이다.

강성에서 혁명적대고조선의 불꽃이 타오른 때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전리마를 타고 기세차게 나래쳐왔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모든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쳤으며 가느다란 것이 세계를 들뜨게하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이룩되였다. 성과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로부터 제 2차 지하핵시험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해동안에 2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고 지난 10년을 합친것보다 더 먼 련차행군을 하신다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한해동안에 지난 10년을 합친것보다 더 먼 련차행군을, 여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인민들의 행복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우시려고 무한대의 혁명적 열정을 폭발시키시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가 깰어없고 더 천만군민을 애국위업에 부르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열렬한 호소가 새겨져있다.

눈보라 강행군을 삼복칠강행군으로 이시며 위없이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격동시켰으며 혁명의 수뇌부의 강행군속도는 그대로 선군조선의 대고조선군속도, 《희천속도》로 폭발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를 인민의 행복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우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승의 기상과 전력적인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위창한 패일을 보고있으며 승리의 중심과 락판에 넘쳐 대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우리는 지금 강성대국의 대문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력사의 지점에 있다. 지금 천만군민의 심장은 세기를 주름잡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속도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희천속도》 창조자로서 10년을 2~3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비상한 결심으로 새 차가 뚫어지고있다.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백철불굴의 신념과 미증유의 대전군속도로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투쟁장전에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겠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콜롬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 힌 다 라 자 팍 사 각 하

나는 스리랑카 독립 62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보내나이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 99 (2010)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하여온 류효명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

【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훈장 제 1급이 주중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되었다. 훈장수여식이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김형준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과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참가하였다.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정령기초시범공장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중공업부서에서 위대성교양을 짜고들고있다. 이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날금진장6호청년발전소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레성강청년 1호발전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레성강청년 1호발전소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1월 30일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발전소중공업원들과 건설자들, 도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98 (2009)년 1월 레성강청년 1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낸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호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기세로 계속 박차를 가하여 2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나머지공사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을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레성강발전소건설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목적치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일군들과 중공업원들, 건설자들이 지난 1년간 전력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진군길에 울리는 신념의 메아리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은 오며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전향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광복의 천리길》과 편편히 이어진 광복의 애국자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된 절충한 위인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사를 백송으로 찬란히 수놓으며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조선혁명.

그 혁명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전리가 새겨져있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이다. 우리 혁명이 실증한 이 력사의 철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얼마나 큰것인가. 돌이켜보면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영웅적사면들과 세인을 경탄시킨 눈부신 성과들도,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려온 값없는 삶과 행복도,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가슴 벅찬 오늘의 현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년의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앞으로 온 나라에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이랑의 노래소리도 《압록강의 노래》와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압록강의 노래》를 입속으로 부르시며 빼앗긴 조국을 기어오리듯 걸음을 굳게 다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험을 경건히 우리들머리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으로 꿰뚫어 살펴보고있다. 《광복의 천리길》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천리길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의 심정을 회고하시며 이렇게 고시하시였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있던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합흥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대학에 있던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합흥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완공단계에 있는 2호발전소건설을 빠른 기일안에 계속하고 3, 4, 5호발전소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벽두에 발전소건설을 또다시 찾아 주신 그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농동적인 전투적회로 대상별, 농정별공사계획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1호발전소에서 발전설비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발전소들의 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메아리

전노의 때의 심리적으로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시오리라.

《광복의 천리길》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이 떠난 조국땅에 민족적 영의 서풍을 피어오르게 할수 있는 주제혁명위업의 기원을 열어놓은 혁명의 천리길이었다.

바로 그 천리길과 이어져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주체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령도따라 자주독립의 희망을 안고 항일성전에 용감 떨쳐나 조국방위사업을 이룩하고 나라와 세기를 이어 부강조선건설의 진군가를 높이 울릴수 있었었던것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면서 울리고 아버지수령님의 덕연,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극적인 사면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광복의 천리길》을 더듬어보면서 《압록강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겠다는 그레서이다. 압록강변에서 다지신 우리 수령님의 력사의 명세는 《압록강의 노래》와 더불어 울려 퍼지고있다.

수십년전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시던 답사생들이 신념의 노래에 담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전국혁명사적일군에소소중합공원에서, 《외국출발 투쟁의 노래》로 진행된 한 회고음악회에서 《압록강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의 깊은 뜻을 무엇보다도 헤아릴수 있오리라.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 우리 수령님도 오늘도 흥진군길에서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시며, 대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정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과 잇닿은 우리 혁명의 천리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것이고 부강조국의 위창한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조국통일의 구성을 우려하는 순결한 마음

남녘인민들은 크나큰 심성과 락판에 넘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걸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이 시야말로 해내의 온 겨레가 진실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할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 조국통일의 구성의식을 절감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이 대명제의 참뜻을 깊이 새겨볼수록 통일외의 숨겨지고 삶과 희열이 넘쳐난다. 이 대명제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자주의 통일의지를 굳건히 심어주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민족애, 조국애가 없이는 이런 대명제를 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는가.

이 대명제를 우리 겨레가 승리의 표대로 들고나갈수 있게 해주신분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민족자주의 양양한 진도를 열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자이다.

연일같이 광주의 한 주민이 리라는 격정의 트로이다.

현시로 쓴 《우리 민족끼리》라는 글방이 새겨진 족자를 자기 집에 걸어놓은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흥모의 정을 표시하며 그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한다.

뜻을 가진 남녘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비록 주의주장과 정견, 신앙, 재산과 지식정도는 서로 달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열렬히 따르고 호모하고있다.

그러한 남녘인심은 통일운동단체에서 주최한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때 토론회에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려나가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있다.

토론회장은 자연히 비범한 사상과 명도력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통일외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의 열기로 끓어넘치고 있었다.

연단에 오른 한 언론인은 《김정일평수님께서는 갈라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두고 깊이 심리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고계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평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는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으로 판공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우리 민족이 법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통일조국을 일떠세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이어 한 제야인사도 《김정일 장군님이 시야말로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통일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명도자이심을 제삼스끼었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략은 그 어느것이나 다 민족애와 자주자주성이 투철하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하였다.

토론회가 끝나갈무렵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과 민족대단합정론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야 할 통일의 기치이다. 그분의 통일방략대로만 한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외는 꼭 성취된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외를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해야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이나 우리 민족이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 영원한 태양이시고 우리 겨레의 어머니이시다.

토론회의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자주통일의 외를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의 마음을 안고오는 남녘인민들의 순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탁월한 명도적풍모,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외를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결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려하며 터치는 남녘겨레들의 흥모의 목소리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전하는 도서를 읽고 흥분을 금할수 없었던 광주의 한 기업가는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김정일장군님은 남과 북, 해외에 흩어져있는 우리 겨레 모두를 사랑의 한몸에 있어서 통일외에 내세워주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결세의 위인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겨레를 통일의 길로 이끄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통일의 진정한 령수이시다. 나는 그분의 웅대한 통일외를 무조건 지지한다.

김정일장군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야 통일이 된다.》

부산의 한 녀성단체회원은 《김정일장군님의 존안은 삼천리를 비치는 아침햇살과 같다.》고 했으며 서울의 한 제야정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강한 통일의지와 탁월한 통일외를 높이 받들어야 통일의 새 날을 본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외를 높이 받들고 그 뜻을 따르려는 것은 남녘의 마음속으로 뜨겁게 번식되고 있다.

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그들의 진정한 웨침에는 자주통일외를 펼치고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장군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모신 끝없는 환희와 긍지가 차넘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 평도자님께서는 분별된 우리 민족애에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외를 실현을 위해 온갖 정열을 기울이고있다.》

그분께서는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잡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외에 모든것을 부종시키고계신다.

김정일평도자님을 우려할수록 통일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받들어 통일외에 이 한몸 바쳐갈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평도자님을 모셔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 있다.》

정녕 들고들어도 끝이 없는 열띤 경모와 칭송의 목소리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외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칭송하면서 그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남녘의 마음속으로 뜨겁게 번식되고 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며 변명하는 우리 조국

재일조선 학생소년 예술단 단장이 격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흥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인 강경익 재일조선학생소년 예술단 단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세 조국은 조국인임을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펼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해공동사절을 받들고 조국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올해를 인민의 행보가 넘쳐나는 변명의 해로 빛내이기를 위한 투쟁이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릴 조국인민들의 모습과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길 그날을 우리 민족이 일어나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고있는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앞 안되는 체류기간에만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 기업소 등을 끊임없이 찾으셨다.

신문과 텔레비전로 현치지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뵈올 때마다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애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변명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결의와 고귀한 결의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최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통성변명하는 우리 조국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그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흥련의 앞날

을 떠메고나갈 주인공으로 준비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역땅에서 나서 자라고있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우리 예술단은 이번에 아버지장군님을 뵈옵고 싶어서 그리며 떠드려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한 공연행위를 준비하여가고 있다. 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외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신념과 의지를 보여줄것이다. 흥련예술단은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국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것이다. 우리는 흥련의 민주주의적민중교육을 발전시키며 재일동포자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애국의 대가 꽃피어 이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을 결의

재미동포전국연합회 1월 23일 14차총회를 가지고 올해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총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문은 지난해 우리 민족이 반일외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에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외를 기쁘게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평화변명을 위해 투쟁

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년이 되는 올해에 기필코 자주통일을 세우는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의문은 모든 재미동포들이 단결하여 분별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폐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운동을 여러 재미동포단체들, 미국과 평화운동단체들과 편대하여 전지역적범위에서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단제가 6.15민중총동원외회의 확대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민족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자

로 씨 야고 통련 성명

로 씨 야고러인 통일연합회 (로씨야고통련)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 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년이 되는 올해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전진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호소문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민족이 대결과 분렬의 력사를 회회와 단란,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획기적인 일대 사변을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격과 흥분이 오늘 남조선에 걸친 반통일보수세력에 의해 찬사리를 맞고 6.15의 통일외를 뜨겁게 차넘치던 강도에 맹진대결의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력사의 분기점에 서있는 오늘 우리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

떨쳐나서자

발표

루빨리 실현하자!》라는 민족공동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더욱 충실하며 남조선당국의 사회대국적인 외세우선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전결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래고와 협력을 가로막고 통일외에 애국애족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를 당장 결여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빼놓지 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은 1월 14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6차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류명환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안을 얼마나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이런 사실이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에서는 토론회라는 것이 열렸다. 거기에서 그에게 북의 평화협정체결안을 《비핵화과정중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다》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류명환은 그에 대해 단답으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은 《연북구어》(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는 뜻)》라고 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의 료체결을 시키고 협동하면 서도 발전된 땅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자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다.》느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이 절고하고있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이라는에서 평화협정은 《6차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과정에 매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본사기자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음흉한 속심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통제로 뒤집히게 된것은 9.19공동선언의 핵심인 자주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깰렸기때문이다.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사회는 우리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자위성발사를 절고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차회담 평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서 우리 위해서는 것이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서 우리 위해서는 것이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통제로 뒤집히게 된것은 9.19공동선언의 핵심인 자주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깰렸기때문이다.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사회는 우리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자위성발사를 절고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차회담 평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서 우리 위해서는 것이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통제로 뒤집히게 된것은 9.19공동선언의 핵심인 자주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깰렸기때문이다.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사회는 우리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자위성발사를 절고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차회담 평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서 우리 위해서는 것이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통제로 뒤집히게 된것은 9.19공동선언의 핵심인 자주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깰렸기때문이다.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사회는 우리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자위성발사를 절고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차회담 평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서 우리 위해서는 것이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문제도 조지아에서 신기가 없이 적대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생겨나고있다.

북침전쟁연습계획 공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군 수송사령부 함단은 1일부터 5일간 부산

해운대구와 경상남도 진해외에 대한 《후천적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무모한 전쟁책동을 단죄

아닐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전쟁반대, 현 《정전》퇴진,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외의 반 6.15책동을

해운대구와 경상남도 진해외에 대한 《후천적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무모한 전쟁책동을 단죄

아닐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전쟁반대, 현 《정전》퇴진,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외의 반 6.15책동을

해운대구와 경상남도 진해외에 대한 《후천적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무모한 전쟁책동을 단죄

아닐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전쟁반대, 현 《정전》퇴진,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외의 반 6.15책동을

해운대구와 경상남도 진해외에 대한 《후천적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무모한 전쟁책동을 단죄

아닐고있는 전쟁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전쟁반대, 현 《정전》퇴진,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외의 반 6.15책동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의사들과 상점판대엔, 리발사 그리고 알지 못할 일꾼들과 사람들, 학생들...

꽃이처럼 황태영동무가 걸은 걸음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가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진정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온정을 다 전하라.)

12년전, 황태영동무와 가정을 이룬 조광원동무는 그때부터 시장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던 2008년 11월 그가 쓴 시조 《신천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다》에 《6월 4일 문간사》이 수여되고 그제까지 30여편의 시를 창작발표한

새해전투로 들끓는 이 땅에 하루하가 지우는 저녁, 락방구역 총성 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인 작가 조광원동무의 가정에서 시청자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대고시대대의 박한 승결을 담은 시를 안하인 황태영동무가 낭송하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조광원동무는 조국보위호소에서 전투업무수행중에 특유 영예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

하늘 땅을 뒤흔드는 위인칭송의 환호성

달이 바뀌고 해가 갈수록 대륙과 대양을 넘어 지구의 끝에서 저 끝까지 유희한 대하마냥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는 환호의 물결, 하늘땅을 뒤흔드는 태양탄세의 환호소리가 높이 울려다녔다.

...
오래양이 솟는다!
백두령봉에 태양이 솟는다
21세기의 태양
인류의 태양
탄세! 세계의 태양 김정일!

...
로씨야의 작가인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처럼 토로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는 여러 기회를 통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추진하고계시는 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이 그이의 현명한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가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심단결의 위력과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나오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아 안으시고 전진길을 끊임없이 걸고계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영도도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은 결과되고 있었다.

그에게는 조선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가 안겨졌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절세의 위인을 모신 행운으로 하여 받아안은 운은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탄세! 세계의 태양 김정일!》이라는 환호성에 담았건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영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체 81(1992)년 2월 초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사업터를 하시다가 2월 16일은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이므로 자신께서 평양에서 명절을 쇠셨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침내 뜻깊은 2월 16일이 아침이 밝아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을 김정일동지의 생일날인데 이젠부터 김정일동지에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야 김정일동지에 송시 한수를 지어줄 결심을 하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였다. 그리고 이는 일군에게 종이와 붓을 부탁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승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붓을 드시고 종이위에 심중에 다들고 달필로 시를 적어내려가시였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 들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홍인간
문무총요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을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최고의 찬가, 이 세상 만민의 칭송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불멸의 송시였다.

이 글밖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옹호하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과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영도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진 장엄한 현실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영도의 결실로 칭송하시며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옹호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에스파냐에 분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국제사회의 찬양을 받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이루어지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이미 전경이 열백배도 일어났을것이고 조선민족은 엄청난 재난을 겪었을 것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은 선군정치를 (인류정치사의 대발전)으로 격찬하고있는 것이다.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을 떨쳐주신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조선에 강성대국의 축복이 터질 날은 멀지 않았다.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 탄세!

미국선군정치연구소소 위원장은 경에 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한 열광같은 칭송의 마음을 자기의 글에 이렇게 담았다.

《위대한 선군태양이 있어 정의에 사는 사람들의 참된 삶이 빛났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덕, 선군정치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 탄세!》

세월이 흘러 년년이 해가 바뀌어 오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며 위엄떨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통하여 경에 하는 장군님의 위인성에 매혹된 세계 5대륙의 지명한 인사들과 진보적인인민들, 언론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세계에 으뜸가는 영인이라고 모시고있다.

로씨야인문 《콜로스 에인스 드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사건들을 모시고 게재한 글에서 그이께서 지니신 용감성과 결단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은 김정일동지시야말로 당당히 2001년의 영인이라고 되신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였으며 이 나라 신문 《폼에 샬트》는 2002년의 주요국가지도자들의 인기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는 명망이 가장 높은분이라고 강조하고 그의 존함을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의 명단의 첫자리에 모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은 로씨야의 지능연구집단이 발표한 현 세계의 10대 명인중에서도 첫 순위에 올랐다. 해마다 명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옹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문불휴의 혁명활동을 세계 여러 나라의 연 4,000여 차례 출판보도물이 광범위 보도하면서 백두령봉의 영도적 현명성을 높이 찬양하였다. 현판보도물들은 진보적인민들에게 불패의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고 새 세계 국제관계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을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영도자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선군정치가 있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것이며 세계자주화 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녕 그 어느 시대에 인류가 이처럼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찬란의 목소리를 높이 터친적이 있었는가. 하기에 로씨야의 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는 이렇게 썼다.

...
아 온 세상이 터치는 우리의 박수, 환호성!
영세의 탄생을 드리는 환호
진정한 영웅의 수호자
김정일 강령의 명수께 드리는 환호성!

...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민의 우렁찬 태양탄세의 환호소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행성의 더욱 높이 울려다졌었다.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집회, 토론회, 좌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회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옹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문불휴의 혁명활동을 세계 여러 나라의 연 4,000여 차례 출판보도물이 광범위 보도하면서 백두령봉의 영도적 현명성을 높이 찬양하였다. 현판보도물들은 진보적인민들에게 불패의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고 새 세계 국제관계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을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영도자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선군정치가 있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것이며 세계자주화 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녕 그 어느 시대에 인류가 이처럼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찬란의 목소리를 높이 터친적이 있었는가. 하기에 로씨야의 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는 이렇게 썼다.

...
아 온 세상이 터치는 우리의 박수, 환호성!
영세의 탄생을 드리는 환호
진정한 영웅의 수호자
김정일 강령의 명수께 드리는 환호성!

...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민의 우렁찬 태양탄세의 환호소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행성의 더욱 높이 울려다졌었다.

금수산기념공원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옹호심을 표시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기이제는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가장 결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20세기의 현대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 새긴 성스러운 력사이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체사상에서는 강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영도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주체사상이 특색이 있는 위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김일성주체주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대표단 성원인 마르코 부메디에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에하는 김일성주체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의지는 참으로 강렬하다.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셨다.

결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신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바브레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캄보 캄프벨 두기우모 하디는 방문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위대한분이다. 우리는 그이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탄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 단장 리금화는 방문중에 이렇게 썼다. **《모택 동지께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중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다.》**

우리는 그이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로씨야연방 외무장 세르게이 워도비치 라브로프는 방문중에 탁월한 국가활동가이시며 주체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체주의의 영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로조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견결한 옹호자로서 로씨야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새겨질것이라고 썼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부의장 남수송, 로씨야로고인 통일연합회 위원장 최명환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영웅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인민들과 마음을 일치할것을 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새해 공동사설을 연구보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 탄생 100돐기념 배후준비위원회, 이란국제태권도협회, 만마 포클러 저널신문사에서 새해공동사설에 대한 გან외와 독보가 1월 12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

이란 국제태권도협회 서기장은 강연에서 조선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려면 전체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공동체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종의 배양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 조선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제시한 구호를 적극 지지하며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리라고 확신한다.

만마 포클러 저널신문사 책임주필은 공동사설을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올해공동사설을 통하여 《당찬권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민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영도 밑에 지난해 조선의 경제는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올해에 조선인민은 경공업과 농업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국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둘것이다.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민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영도 밑에 지난해 조선의 경제는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올해에 조선인민은 경공업과 농업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국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둘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

남아프리카대륙형 차르코 게를레이 홀베르가 1월 1일 27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가 발전된 상나라들의 번영에 이바지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경제분야에서 남남협조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자기 나라는 교육, 보건, 하부구조, 통신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발전기속에서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

남아프리카대륙형 차르코 게를레이 홀베르가 1월 1일 27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경제분야에서 남남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연설하였다.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

그는 《메트로폴리탄》명단에서 꾸바를 무조건 작세하고 꾸바인들의 비법적인 이주를 사육하는 법을 폐지하며 자기 나라에 대한 무역경제봉쇄를 해제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직까지 꾸바혁명 운동을 말살하려는 흉계를 버리지 않았고도 수십년동안 실시하고있는 꾸바에 대한 무역경제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일본의 도쿄에서 1월 30일 미군기지반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6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중략)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미 2008년 3월에 조선의 핵기지를 정밀 유도무기로 《선제타격》할것이라고 제천바 있는 남조선피뢰기장부 장관이라는자가 얼마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무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제타격》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미 2008년 3월에 조선의 핵기지를 정밀 유도무기로 《선제타격》할것이라고 제천바 있는 남조선피뢰기장부 장관이라는자가 얼마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무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제타격》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미 2008년 3월에 조선의 핵기지를 정밀 유도무기로 《선제타격》할것이라고 제천바 있는 남조선피뢰기장부 장관이라는자가 얼마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무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제타격》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단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예드 에베카트가 1월 22일 한 회견에서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수상이 《정확한》 건설을 완전히 중지할때는 팔레스타인과의 요구를 철저히 앞으로의 평화회담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단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예드 에베카트가 1월 22일 한 회견에서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수상이 《정확한》 건설을 완전히 중지할때는 팔레스타인과의 요구를 철저히 앞으로의 평화회담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일본의 도쿄에서 1월 30일 미군기지반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6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중략) ...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일본의 도쿄에서 1월 30일 미군기지반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6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중략) ...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일본의 도쿄에서 1월 30일 미군기지반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6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대회... (중략) ...

일본어선들 로씨야령해를 침범

일본어선들이 1월 30일 남부쿠릴랜드부근에서 로씨야의 영해를 침범하였다.

로씨야방위안전국 싸할린해안경비군은 이날 2척의 일본어선이 적지하라는 로씨야측의

일본어선들 로씨야령해를 침범

일본어선들이 1월 30일 남부쿠릴랜드부근에서 로씨야의 영해를 침범하였다.

로씨야방위안전국 싸할린해안경비군은 이날 2척의 일본어선이 적지하라는 로씨야측의

일본어선들 로씨야령해를 침범

일본어선들이 1월 30일 남부쿠릴랜드부근에서 로씨야의 영해를 침범하였다.

로씨야방위안전국 싸할린해안경비군은 이날 2척의 일본어선이 적지하라는 로씨야측의

일본은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한 극악한 전범자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어온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고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이수적으로 학살하고 도시와 마을, 학교와 병원 등이 평의 모든것을 무참히 파괴

말살한 미제의 야만적인 전범피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은 미제의 남강도적인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래전부터 조선은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쟁범죄를 적극 협력해온 일본반동정부는 조선전쟁이 개시되자 전쟁참여범죄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길에 들어섰었다.》**

일본군주주의자들은 제 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지지비호 밑에 재생재무장화를 다그치면서 상전이 일어난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전쟁이 터지자 당시 일본수상 요시미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도 일본병사들을 지지환영하면서 일본병사들을 《제국》하였다고 약속하였다.

1950년 7월 오사다만동 정부는 이른바 《내각회의》를 열고 《조선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행정적조치의 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침체

일본국토교통성은 1월 29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그 전해보다 27.9%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국내자동차생산량은 31.5% 감소되어 196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